

◎ 國內經濟 輸出小幅 回復勢로 7.0%線 成長

吳 尚 勳
〈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1. 概 觀

우리 經濟는 현재 消費와 輸入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輸出이 크게 부진한 전형적인 經濟構造調整局面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鈍化現象은 지난 3년간의 好況에 이어 89년에는 景氣下降局面에 진입할 것이라는 年初부터의 豫見도 어느정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우리의 成長主導部門이었던 輸出이 對內 및 對外部門의 輸出環境惡化로 당초 올 목표였던 700억 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업계에서는 90년의 우리 經濟 모습도 매우 비관적으로 展望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成長의 엔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企業設備投資에 있어서도 최근의 3高現象(高金利, 高換率, 高賃金)을 反映하여 투자 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89년 1/4 분기에는 80년 이래 最低의 增加勢를 보이는데 이어 下半年에도 그 鈍化勢가 이어져 앞으로 우리 경제의 成長潛在力 擴充에 커다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消費部門에서는 그런대로 올해 內需部門을 크게 지탱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低成長에 비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國內貯蓄이 鈍化되는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國內資本形成에 있어서도 自立基盤을 크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景氣變動의 측면을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는 同行指數循環變動의 최근 추세를 본다면 88년 2월을 頂點으로 景氣下降局面으로 들어가 89년 6월에는 82년 이래 最低點으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최근의 景氣鈍化現象이 어느 때보다도 하강의 골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이후부터는 다소 上昇局面으로 反轉하여 10월까지도 上昇勢가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景氣循環사이클면에서 景氣回復의 好轉조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현재로서 景氣를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견인력이 미약하고 최근의 景氣鈍化는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問題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침체현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과연 景氣調整局面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 앞으로 高賃金-高物價-低成長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의 고리를 끊고 그 手順을 착실히 밟아 다시 과거와 같은 成長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욱 惡化되어 영원한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90년대의 우리 경제 모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成長展望

90년의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前年에 비해서는 다소 回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展望의 근거로서는 첫째, 그동안 輸出惡化의 主要因으로 인식되어왔던 換率의 運用에 있어 政府

쪽에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 上半期中 美달러貨가 다시 弱勢로 反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 경우 對美名目換率 이 平價切下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實質實效 換率面에서 약간의 切下가 예상되고 있다. 둘째, 政府의 投資促進 및 輸出增大를 위한 臨時投資 稅額空除制度, 特別外貨貸出 擴大 등 下半年綜合對策과 金利引下 및 産業構造 調整資金지원을 포함한 11·14 景氣浮揚策이 89년 下半年부터 실시되어 企業의 資金事情이 다소 나아짐으로써 그 效果가 90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可視化될 것으로 보이며 셋째, 對外與件面에서 國際原油 및 原資材 價格이 내년에도 과잉생산 및 世界需要鈍化로 弱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國內輸入價格이 安定될 것으로 예상되며 넷째, 그동안 生産蹉跌의 한 요인으로 되어온 勞使紛糾가 내년들어 다소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기획원이 집계한 勞使紛糾 發生件數 추이를 보면 87년 下半年의 3,186件에 비해 88년에는 1,873件, 89년(1~10월)에는 1,532件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海外輸出需要를 가늠할 수 있는 내년도 先進國經濟展望을 본다면 금년 下半年以後 인플레이 억제, 自國通貨安定을 위한 잇단 金利引下조치 및 각종 緊縮政策의 견지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鈍化됨에 따라 90년에도 減速成長을

主要 經濟成長 實績

〈表-1〉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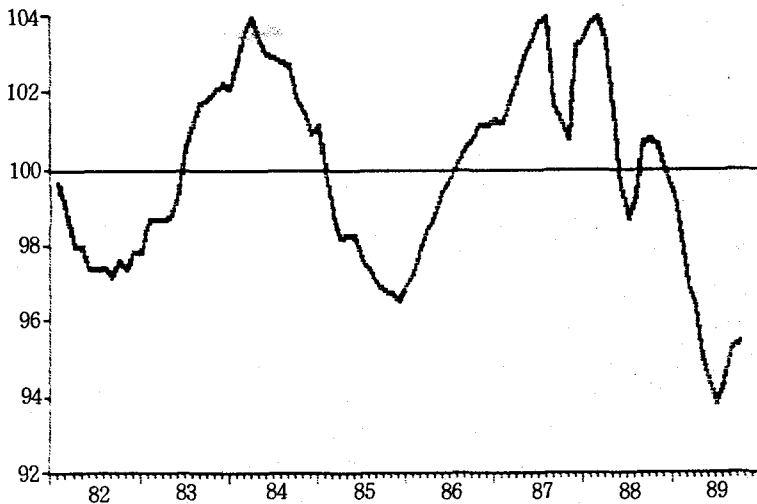
	1988	1989			
		1/4	2/4	3/4	1/4-3/4
국민총생산	12.2	5.6	7.3	6.9	6.6
광 공 업	12.7	0.9	4.9	4.1	3.3
(제 조 업)	(13.0)	(1.0)	(5.2)	(4.3)	(3.5)
전기·가스·수도	6.3	14.0	5.8	13.1	11.2
건 설 업	9.4	10.8	12.9	17.3	13.6
서 비 스 업	12.6	6.4	7.3	8.5	7.4
최종소비지출	10.0	9.7	10.2	9.7	9.8
(민 간 소비)	(9.6)	(10.3)	(10.2)	(9.5)	(10.0)
설 비 투 자	10.1	2.1	13.4	13.4	9.7
상 품 수 출	14.7	-4.3	-4.5	-7.0	-5.3

註: 85년 不變價格基準.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 海外需要의 鈍化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要因들을 綜合해 볼 때 90년의 우리 경제는 民間消費增加勢는 다소 鈍化되겠지만 輸出은 對內的인 與件이 다소 改善되어 회복의 기미를 보여 GNP 成長은 7.0% 內外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部門別로 보면 먼저 總消費支出은 최근 家計所得의 증가와 餘暇選好의 增大로 특히 耐久消費財와 서비스部門의 消費支出을 중심으로 빠른



〈그림-1〉 同行指數循環變動의 推移

各 機 關 別 巨 視 經 濟 展 望

〈表-2〉

(單位：%)

	1989	1990					
		KDI	韓 銀	KIET	全經聯	三星經濟研	WEFA
實 質 GNP	6.7	7.4	7.0	7.0	6.5	6.0	6.9 ²⁾
總 消 費	9.9	9.0	8.2	8.0	8.9	-	9.4 ³⁾
固 定 投 資	12.2	11.5	12.4	10.0	10.3	-	8.8
商 品 輸 出 ¹⁾	-6.5	4.5	3.8	5.4	-	-	3.8
商 品 輸 入 ²⁾	14.0	9.5	6.9	9.7	-	-	5.8

註：1) 物量基準. 2) 實質 GDP 基準. 3) 民間消費基準.

成長勢가 持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低成長에 비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서 長期的인 면에서 우리 경제의 成長 潜在力을 크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90년의 總消費도 높은 수준일 것이나 89년에 비해서는 다소 鈍화된 8~9%의 增加率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그동안 輸出部門의 不振에 비해 상대적으로 內需成長이 활발해 내년에도 消費支出이 크게 主導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89년 低成長에 따른 家計所得의 감소, 경기 위축의 長期化에 따른 消費心理의 위축, 정부의 物價安定化 政策의 持續, 아울러 信用卡을 이용한 구매한도의 축소와 금융기관의 消費性家計資金의 貸出억제 등 過消費유발소지가 있는 金融縮小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投資는 그동안의 棘齒한 勞使紛糾, 政治社會 불안 등이 누적되어 온 가운데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당초의 投資計劃이 實行되지 않았던데다 설상가상으로 勞使紛糾에 의한 生産蹉跎 자체가 資本財 供給隘路를 더욱 加速化시켜 設備投資面에 있어서는 올 1/4~3/4 분기중 9.7%의 한자리數 增加勢를 보였다. 반면에 建設投資는 同 期間中 16.3% 증가하여 크게 好調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投資는 그 內容面에 있어 과거에 비해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設備投資보다는 建設投資가 好調를 보였고, 製造業 部門보다는 서비스部門 등 非製造業部門에 投資가 집중되었으며 施設資金 貸出도 商業, 飲食·宿泊業 등 서비스분야에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또한 기존의 勞動集約的 部

門에서 自動化·省力化 등의 投資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雇傭增大의 隘路要因으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90년의 設備投資는 정부의 적극적인 景氣浮揚對策과 對內外的 投資環境의 점진적 改善에 힘입어 올해보다는 投資環境이 好轉될 것이나 輸出의 비중이 높은 輕工業部門의 設備投資에 있어서는 產業構造 轉換과 生産性 向上을 위한 소극적인 投資로 다소 鈍화가 예상된다. 建設投資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公共部門의 道路, 住宅, 新都市아파트建設 등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89년과 같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民間部門은 供給物量 증대에 따른 住宅景氣의 鈍化, 設備投資 鈍化에 따른 工業用 建築의 감소에 의해 前年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設備投資와 建設投資를 합한 固定投資는 前年보다 밀도는 11% 내외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3. 對外去來

최근의 輸出不振 현상은 먼저 對外的인 면에서 그동안의 原貨切上 및 賃金上昇 등의 여파로 인해 他開途國에 비해 商品競爭力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對內的인 면에서는 內需部門이 상대적으로 好調를 보임에 따라 企業들이 輸出部門에서 內需部門으로의 構造轉換을 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輸出小幅 回復勢로 7.0%線 成長

또한 商品別로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의 主輸出商品이었던 電氣·電子, 纖維, 自動車, 신발, 鐵鋼 등에서 모두 不振한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電氣·電子製品은 EC·中國의 輸入規制와 더불어 美·日 등지에서 價格競爭力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自動車에 있어서는 美國의 需要鈍化와 신모델개발 지연으로 9월말 현재 對美輸出이 44.5%나 감소하였다. 신발은 최근 다소 回復추세에 있기는 하나 그동안 原料切上 및 賃金引上으로 인한 생산라인의 축소, 企業들의 海外移轉으로 10월 現在 前年同期에 비해 9.6% 감소하였다.

내년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換率安定화와 政府의 輸出改善意志표명에 따른 輸出環境改善노력 즉 市場實勢金利引下유도, 貿易金融 融資單價引上, 産業設備資金지원 확대 및 勞使安定化 對策 등 對內的 環境要因들이 다소 好轉될 것으로 보여 物量 基準으로는 3~4% 증가하여 金額上으로는 670~680억 달러(國際收支 基準)에 이를 전망이다.

輸入은 금년 10월까지 19%(通關基準)의 높은 增加率을 記錄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政府가 추진하여 온 內需의 대폭적인 擴大,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市場開放 및 關稅率 引下 등의 輸入 促進策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90년에는 최근의 경기침체현상을 반

영, 특히 內需用 消費財 輸入을 중심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88년, 89년의 14%線 物量增加勢에서 한풀 꺾인 8~9% 증가로 金額 基準으로는 640억 달러(國際收支基準)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貿易外 및 純移轉收支面에서는 對外資産增加에 따른 投資收益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나 海外旅行增加로 인한 旅行費用支給, 換率의 安定化에 따른 短期性 投機資金(hot money)의 差益期持解消 등으로 黑字幅이 88년의 27.1억 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져 89년과 비슷한 수준인 5억 달러 정도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90년의 무역수지는 30~40억 달러, 경상수지는 35~45억 달러의 흑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4. 賃金 및 物價

87년 이후 民主化 趨勢에 의한 各계각층으로부터의 所得補償慾求 등 제몫찾기가 노골화되면서 經濟·社會的인 面에서 커다란 不安要因으로 대두되어 왔다. 또한 최근들어서는 勞使紛糾가 大形化·長期化·組織化되는 추세에 있어 企業體의 生産鈍化, 輸出不振 및 企業의 投資意慾減少 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經濟企劃院 集計를 보더라도 89년 10월까지 勞使紛糾 發生件數는 1,532件으로서 87년, 88년

各 機關別 國際收支 展望

<表-3>

(單位: 億 달러)

	1989	1990						三星經濟研
		KDI	韓 銀	KIET	全經聯	貿易協會 ¹⁾		
						I	II	
經常收支	50.0	50.0	34.0	-	43.2	-13.0	13.0	21.0
貿易收支	45.0	45.0	32.0	13.0	29.3	-3.0	23.0	15.0
輸出	610.0	685.0	670.0 ²⁾	694.0	693.0	654.0	670.0	663.0
輸入	565.0	640.0	680.0 ²⁾	681.0	663.7	657.0	647.0	648.0
貿易外 및 純移轉	5.0	5.0	4.0	-	13.9	-10.0	-10.0	6.0

註: 1) I은 換率이 現水準에서 지속되는 경우, II는 換率 및 賃金이 다소 好轉되는 경우.

2) 通關基準.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 및 輸出蹉跌額

<表-4>

	87	88	89 (1~10월)
勞使紛糾 發生件數	3,186	1,873	1,532
生産 蹉跌額(억원)	27,782	32,020	34,555
輸出 蹉跌額(백만불)	537	732	1,148

資料: 經濟企劃院, 經濟動向報告, 各號.

註: 87년은 7.25~9.28 期間分.

各 機關別 物價 展望

<表-5>

(單位: %)

	1989	1990			
		KDI	全經聯	韓 銀	WEFA
GNP디플레이터	4.8	3.8	-	-	4.5 ¹⁾
都 賣 物 價	1.6	2.0	3.3	2.2	-
消 費 者 物 價	5.8	5.5	6.8	6.0	6.0

註: 1) GDP디플레이터 基準.

의 각각 3,186件, 1,873件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지는 추세지만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蹉跌額은 89년 10월까지 누계로 34.6조원에 달했으며 輸出蹉跌額도 11.5억 달러로 해마다 더욱 커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勤勞의 內容面에 있어서도 休暇日數 增加, 勞使紛糾, 海外需要鈍化 및 勤勞意慾 低下 등의 要因으로 勤勞日數 및 勤勞時間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勤勞의 量的인 면에서 뿐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低下現象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製造業 月平均勤勞時間은 89년 上半期中 222.4시간으로 87년에 비해 12.2시간이나 줄어 들었으며 海外市場에서의 우리商品 品質檢査 不合格率도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賃金은 86~88년 好況局面에서 87년 3/4분기까지는 生産性範圍內 賃金引上으로 安定되어 왔으나 87년 4/4분기부터는 生産性を 초과하는 두자리 수 이상의 賃金引上 趨勢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高賃金의 현상으로 新規勞動者 및 高學歷者 등의 失業이 더욱 심화되어 온 반면 生産職·事務職간의 賃金隔差는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과거에는 物價의 賃金

主導性이 강했던 반면 勞使紛糾 발발 이후부터는 賃金의 物價主導性 性格이 더욱 커져 경기침체 국면에서 物價上昇과 賃金上昇間的 나선형 惡循環으로 스태그플레이션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90년의 名目賃金도 올해와 같이 높은 增加勢가 유지될 것이나 다만 최근의 生産性低下現象, 景氣鈍化, 政府의 勞使安定化 對策 등으로 그 增加勢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않은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物價는 農産物, 서비스料金 등 家計에 부담이 큰 品目들이 物價上昇을 主導한데다 消費風潮의 漫연, 不動産投機, 勞使紛糾 등 社會不安心理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제 消費者 物價指數보다 各物價가 훨씬 크게 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89년초부터 通貨緊縮, 아파트분양가고수, 各종 서비스料金規制 등 物價安定化에 크게 주력한 바 있으나 下半年 들어서부터는 다시 인플레이가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90년 中에도 賃金引上, 所得補償要求增大, 過消費風潮, 勞使紛糾로 인한 內需用 物品의 需給蹉跌 등의 物價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物價安定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總需要 管理面에서도 國際收支黑字가 줄어들지는 추세이나 黑字가 持續됨에 따른 通貨增發效果面에서도 物價오름세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最近 두자리 數의 추곡수매가 引上和 投資浮揚을 위한 特別設備資金供給 및 金利 1% 引下를 유도하기 위한 資金의 供給擴大 등 資金의 흐름에 대한 뚜렷한 是正이 되지 않는 한 物價上昇을 加重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人플레이 재연의 우려속에서 對內的으로 家計 所得減少 및 信用規制에 따른 民間消費需要의 減退, 不動産價格의 安定要因과 對外的인 면에서 原油 및 原資材價格의 安定, 할당관세 적용 확대에 의한 輸入負擔의 완화 등이 物價上昇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0년의 物價는 금년의 1.6%에서 다소 높아진 2~2.5%, 소비자물가는 금년의 5.8%에서 6%내외의 人플레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